

광장극동 재건축 '속도전' 2049가구 대단지 탈바꿈

광진구, 정비구역 지정 고시

한강 연결 보행·녹지 조성

광진구는 최근 광장동 218-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됐다 고 밝혔다.

대상지는 1985년(1차)·1989년(2차)에 준공된 총 1344가구의 노후 중간 부후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구는 2024년 1월 신도시통합기획지편사업 접수 이후 서울도시개발과 협의하며 관계부서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온 결과, 2025년 6월 정비계획 인안이 주민참여 권

이후 약 10개월 만에 결정 고시에 이른 성과를 이뤘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나루역 역세권과 한강변에 인접한 약 7만 9417㎡의 사업 부지에 재33층일반 주거지역 '역세권 용역률 확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39.50%까지 완화됐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473가구를 포함한 총 2049가구, 최고 49층 규모의 한강변 대단지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건축으로 단지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녹지 축이 새롭게 조성된다. 천호대로변 한강녹지를 재정비하고 단지와 소공원에서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 중심을 확충해 주민의 한강 접근성과 보행 환경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나루역 지하철 출

입구를 단지로 이설하고 입입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성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함께 '조합적립설립 공공지원' 절차를 병행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2025년 11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을 계약하고, 2026년 1월 조합설립 주민협의회 구성을 완료함으로써 추진위원의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향후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사업 기간을 추가 2~3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중랑구, 소상공인·중소에 특별신용보증 용자 50억 추가 지원

세마을금고·중앙회와 협력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4차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12억5000만원 규모의 용자를 지원한 데 이어,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용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

값 상승,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중랑구 관내 새마을금고 13곳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특별 출연금, 재단은 이를 지원으로 출연금의 12.5배인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는 시중은행 협약분 212억5000만원에 포함해 총 282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특별신용보증용자 175억원보다 87억 5000만원 확대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용자를 지원한다.

대출은 연 2~3%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재단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4년 균

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중랑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재대출 협약된 새마을금고에서 대금을 실행한다.

구는 자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영준 기자 yyy@siminilbo.co.kr

올 하반기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406개 제공

강북구, 구민 생계 안정·사회 참여 기회 확대

1시간당 1만320원 지급... 8~15일 신청 접수

강북구(구청장 이승희)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계 안정과 사회적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사회 통합일자리 사업' 참여자 406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돌

봄, 안전, 환경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반기 사업은 총 5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분야별 모집 인원은 ▲돌봄·건강 분야 89명(장애인지원 제외 등) ▲경제 분야 52명(결식우려·홀몸노인 지원 등) ▲사회안전 분야 14명(불법코딩 등 정비 등) ▲기후환경

분야 216명(폐자원 재활용 등) ▲디지털 분야 35명(디지털 안내 지원 등)이다.

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 지급되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간식비 등이 별도로 지원된다. 근무시간은 6세 미만은 주 20~30시간, 6세 이상은 주 15시간으로, 세부 근무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임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과 구민서비스를 통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어른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하루'

송파구, 9일 '아동·청소년 축제'

댄스 챌린지·동아리 10팀 공연

서울 송파구가 오는 9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6월 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으며, '꿈꾸는 우리, 열리는 내일'을 주제로 아동·청소년 2000여명과 함께할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13개 체험 부스가 문을 연다. 힐링 향수 만들기, 나뭇잎 케이크 만들기, 미션 게임, 포토존 만들기 등이 마련된다. 부스를 돌며 도장을 모으면 쿠키스, 아이스크림, 인생테이프 등을 받을 수 있는 '스텝프린트'도 ویژه로 운영한다.

일종의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댄스 챌린지'다. 요즘 아이들

에게 익숙한 숏폼 영상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다. 부스에서 어른들은 볼라보 노래에 맞춰 춤을 따라 추거나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영상도 찍을 수 있다.

오후 1시 개최식은 지역내 한민연예예술고등학교 댄스팀 'D'와 비비이 그룹 'MR코루' 무대무 분을 연다. 이어 송파구어린이도서관이들과 청소년단체 청소년들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며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아동·청소년 동아리 공연'이다. 10개팀이 밴드, 댄스, 난타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 펼친다. 마지막 축하 무대는 열매 '쇼미더비12' 우승자인 페퍼 김하은이 장식한다.

이재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9일 토종 작물 모종 배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 오는 9일 오전 10시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토종 작물 순화 프로젝트'를 연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2월 '토종 씨앗' 대회를 위한 구민 성원과 추가 대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씨앗을 직접 받아사키기 어려워하는 초보 재배자들을 위해 박물관 축이 직접 키워낸 '토종 모종'을 대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 당일 현장 선착순 서대문구민 100명에게 1인당 5종 세트(종별 1~3포기)를 제공한다. '서대문구민 무로인장'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종을 담기용 개인 장바구니도 준비해 놓았다.

이성현 구청장은 "주민 텃밭에서 우리 고유의 모종을 키우는 이번 프로젝트가 생물다양성과 건강한 생태 공동체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동작구, 13일까지 '뽕방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동작구(구청장 박익하)는 오는 13일까지 2026 뽕 굽는 동작, 뽕방 콘테스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콘테스트는 구민의 특색이 담긴 '동작방'을 선정하고, 대형 유통사나 CU와 협업을 통한 상품 출시로 지역 배아지역 브랜드 판로 개척과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구 소재 재택업자 종사자, 재방 출몰이 가능한

주민, 지역내 학교 및 재방 관련 학원 재학생 중 19세 이상 성인이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제출된 참가 신청서와 레시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서류 심사 결과 총 1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서류 심사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hsh2027@dongjak.go.kr) 또는 방문(동작구청 7층 문화정책과)을 통해 가능하다. 본선 대회인 '2026 뽕 굽는 동작 뽕방 콘테스트'는 오는 6월12일 구청 1층에서 열린다.

용산구, 청년 취업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용산구(구청장 박익하)가 미취업청년의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용산청년관에서 총기 과정과 장기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장기 과정은 26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4월23일 15주간 12시~20시 진행된다. 장기 과정은 14명을 대상으로 12월~11월1일 25주간 20시~24시 운영된다.

참여자 모집에 따라 최소 50인원에서 최대 350인원까지 참여수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지원사업·피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발판 불안,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중랑구 관내 새마을금고 13곳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의 특별 출연금, 재단은 이를 지원으로 출연금의 12.5배인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는 시중은행 협약분 212억5000만원에 포함해 총 282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지원



중랑문화원 이전 개원식. 중랑구가 최근 지역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조성된 중랑문화원 이전 개원식을 개최했다. 1998년 개원한 중랑문화원은 약 30만㎡ 구민회관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에 따라 부주제로 101 '세이움 상방' 3층 기부채널 공간(면적 1066㎡)으로 이전했다. 사진은 류경기 구청장 및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관악구, 올해 총 1억 투입

인건비·재료비 사용 불가

서울 관악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관악구는 지난해 7개 기업에 8000만원의 재정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역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4억원의 사업개발비를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공익의 이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동통신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생산품 생산시설 등이 해당한다.

구는 사업계획과 기업 실적, 사회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최대 2000만원 이내의 사업개발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비는 브랜드 개발과 시제품 제작, 제품 성능·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건비, 시설·장비 구매비,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지참해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관악구청 일자리센터(관악로 101)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관계자(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담당)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번 사업이 지원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장 정문현)가 유류 공공자산을 재활용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탈바꿈시킨다.

6일 구는 신영동 120번지에 자리한 가설건축물(지상 2층)을 철거하는 대신 연면적 187㎡, 지상 1층 규모의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5월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7월 준공, 10월 개장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한 곳도 없어 무방담·경향동 거주 아동 1,211명은 그간 마음 놓고 놀아줄 수 없는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기존에 한옥 자재를 보관·순환시켰던 공간을 그대로 활용, 최소 예산으로 주민 숙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단기·장기 전략을

중로구, 유류 공공자산 재활용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대변신

신영동에 10월 개장 목표

방게 추진한다.

김세민(구청장)은 2030년 6월 준공 예정인 시민공원초등학교 건립과 연계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이어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가설건축물을 활용해 놀이터를 짓고 아이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실제의 방침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미세먼지가 걸리나 한여름 폭염, 한겨울 강추위가 몰아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땀·공놀이·꽃가루를 즐길 수 있는 복합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후 철거는 교체하고 실내등·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정비해 쾌적한 여건을 마련한다. 보호자 대기실, 어린이용 화장실 등도 별도 조성해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재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제17회 성북 어린이시장' 동요제 본선 수상자들이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북구, 아리랑 동요제 본선 개최

성북구가 최근 성북구청 바림마당에서 '제17회 성북 어린이시장 동요제' 본선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리랑 동요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는 동요 경연대회이다.

이번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15팀이 참가해 각자의 무대를 펼쳤다. 앞서 진행된 예선에는 총 44팀이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 참가팀은 ▲유치부 5팀 ▲초등 저학년부 5팀 ▲초등 고학년부 5팀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결과 각 부문별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팀이 선정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관객들 앞에서 동요를 부르냈고, 무대 주변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모여 공연을 지켜봤다.

행사에서는 전년도 수상자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고, 마무리 행사로 '매직 버블쇼'가 진행돼 아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같은날 '어린이 친구 성북 페스티벌'과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은 동요 공연과 함께 놀이·체험 부스를 이용하며 시간을 보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노원구, 기차마을 이탈리아관 전시 콘텐츠 확충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원구기차마을을 이탈리아관의 전시 콘텐츠를 확충하며 볼거리 풍부 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구는 지난 19일 핵심 신규 콘텐츠로 '밀라노 대성당' 디오라마를 공개했다. 해당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자유와 방' 제17회 전시 공간에 구상해 관람객이 360도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밀라노 대성당은 실제 건축물의 외관뿐 아니라 약 3000여개의 조각상을 87분의 1 비율로 정밀하게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로마의 스타디움 올림피코를 모티브로 한 기차마을의 공간 '노인 스타디움'이 공개됐다. 이 공간은 이탈리아 축구 문화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한편, 관람객과 선수와 감독 연출을 통해 경기장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또한 5월 볼게 주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갤러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밀라노 지역의 고층스러운 거리 풍경을 재현할 계획이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